

최근들어 우리나라 금융계에 투기성 단기자금이 '핫머니' 현상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 25일부터 급속히 늘기 시작한 주식투자용 해외자금의 순잔고가 11월 6일자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 자금의 성격은 놓고 금융시장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우선, 해외자금의 성격을 투기성 단기자금이라고 규정짓는 측에서는, 올해 초 증시개방이후 외국인들의 주식투자가 단기차익을 노린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증시가 처음 개방된 지난 1월중에 3천억원을 넘는 거액의 해외자금이 국내에 유입되었다가 얼마안돼 다시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최근들어 증시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기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거액의 자금을 유입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해외자금이 높은 단기자익을 얻은 후 일시에 해외로 유출될 때 국내경제는 혼란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에 해외자금의 성격을 투자성 중장기자금이라고 파악하는 측에서는, 9월이후 국내경제 및 증시주변변동들이 호전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장기투자를 위해 국내증시에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9월 이후 △거시경제지표들의 호전 △정국의 불안요인 감소 △정부의 '8·24중시안정화대책' 등에 따라 국내증시가 다소 활황기미를 나타내자 외국인들의 우리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해외자금유입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해외자본의 주식회전율이 국내자본의 회전율보다 낮다는 통계수치까지 감안하면 최근의 해외유입 자금은 중장기적 기미를 가지고 들어온 건전한 투자자금으로 '핫머니'로 규정하는 것은 단견이라는 시각이다.

결국 거액의 해외자금이 '핫머니'인 것인지 아닌지는 지금 당장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상황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핫머니'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와같은 해외유입자금의 성격에 관해서는 현재와 함께 사실상 지금 이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월좌향하면서 원시적 대외관을 남발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대응지책이다. 최근들어 해외자금유입의 증가로 총화중가율

추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든가 앞으로 예상되는 더 큰 혼란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일반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앞으로의 통화관리방식은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갑자기 해외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해서 지금처럼 △외자도입억속 △통화제 강대 △대출규제 등 명명하달식 직접관리방식에 의존해서는 금융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그대안으로 △공개시장조작 △세할인 △시분별별정액 등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해외자금의 유출입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국내통화량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화관리의 대상도 현재의 은행중심에서 제2금융권과 해외시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통화지표의 변경이나 복수통화지표의 채택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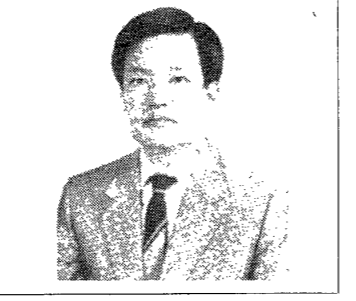
셋째,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금융거래위험이 확대될 소지가 큰 만큼 금융선물 및 '옵션' 거래제도의 국내도입을 통해 외환, 금리, 그리고 주가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정부의 금융통제 그리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금융관행 때문에 금융시장의 비효율성과 왜곡이 지속되어 온 만큼 시장 '메카니즘'을 회복시키면서 해외자금유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 증시개방이 풀려갈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대응에만 몰두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국경제는 개방압력에 한동안 침몰할 양을 것이다.

시시 논단

홍승기
경상대 무역학과 교수·국제금융



정부 직접관리로 부작용만 커져

'핫머니'유입에 탄력적 통화관리 필요

이 목표치인 18.5%를 초과하여 19%선을 넘어섰다. 재무부와 한국은행 등 정부당국은 △공공차관과 '뱅크런' 그리고 해외증권발행의 억제 △통화제강급의 증가 △국제은행 및 시중은행의 대출규도 축소와 유가증권 매입자에 등 직접규제수단들을 총동원하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의 실제금리가 다시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으며 기업들의 자금조달은 큰 차질을 빚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여기에다 만약 해외자금이 '핫머니'로 돌변할 때 나타날 부작용까지 감안하면 정부의 사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증시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해외자금의 유출입이 빈번해지고 이에 따라 국내통화, 물가, 그리고

국내도입을 통해 외환, 금리, 그리고 주가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정부의 금융통제 그리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금융관행 때문에 금융시장의 비효율성과 왜곡이 지속되어 온 만큼 시장 '메카니즘'을 회복시키면서 해외자금유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 증시개방이 풀려갈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대응에만 몰두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국경제는 개방압력에 한동안 침몰할 양을 것이다.

년 1992년 한해동안 2조원내외의 해외자금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들을 미리 마련해 놓아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치의 절반정도에 불과한 1조원 정도의 해외자금유입 때문에 정부의 정책조치가 흔들리고 안정기반이 위협받는데서야 개방화시대에 한국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우려가 된다. 더구나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을 불과 몇년 앞둔 현 시점에서 해외자금의 일시적 유입 증가를 종래의 국내적·지역적·정책적 금융통제 수단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당국의 무능이 딱하긴 하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의 '핫머니'소동이 증시개방 초기에 발생한

만쯤 앞으로 예상되는 더 큰 혼란을 극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응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일반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으로서는 첫째, 앞으로의 통화관리방식은 직접규제에서 간접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갑자기 해외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해서 지금처럼 △외자도입억속 △통화제 강대 △대출규제 등 명명하달식 직접관리방식에 의존해서는 금융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그대안으로 △공개시장조작 △세할인 △시분별별정액 등 간접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해외자금의 유출입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국내통화량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화관리의 대상도 현재의 은행중심에서 제2금융권과 해외시장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통화지표의 변경이나 복수통화지표의 채택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 및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금융거래위험이 확대될 소지가 큰 만큼 금융선물 및 '옵션' 거래제도의 국내도입을 통해 외환, 금리, 그리고 주가변동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난 30년 동안 △정치경제적 이해관계 △정부의 금융통제 그리고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금융관행 때문에 금융시장의 비효율성과 왜곡이 지속되어 온 만큼 시장 '메카니즘'을 회복시키면서 해외자금유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 증시개방이 풀려갈 것이다. 정부가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대응에만 몰두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한국경제는 개방압력에 한동안 침몰할 양을 것이다.

사설

미술학과 실습실 공간 문제

대학교육에 있어 강의실이나 실습실은 필수조건으로 간주된다. 모든 대학의 강의실·실습실 현황은 곧 대학의 교육환경 수준을 직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요즘은 학내에서는 예술대 미술학과 실습실공간 확보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학교당국간 팽팽한 마찰을 빚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동국대 미술학과와 토목공사 시작으로 실습실의 이동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이다.

학교당국은 지난 9월 교무위원회를 통해 미술학과 실습실 공간을 대체할 가건물신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공유, 현존하는 각건물의 일부공간 사용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동국관, 해화관, 수영장동에 미술학과 실습실 공간을 마련하고 기존의 8교사에서 1시간 연장한 9교사 수업실사용 강의를 시간표를 전면조정했다. 하지만 학교당국의 이와같은 방침은 향후 동국대미술학원이 준공될때까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장애요소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학내의 강의·실습공간 부족은 비단 예술대 미술학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신설된 기계공학과를 비롯 올해 신설된 야간 정보관리학과 등 지

속적인 공간확보를 해야하는 학교당국으로선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닐수 없다.

지난 90년 본교 대학자체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강의실 실질사용률은 50%로 집계됐다. 3년이 경과한 현재 강의실 실질사용률은 55%로 상승한 상태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의실을 비롯한 학내 제공간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번엔 발생한 미술학과 실습실 공간문제는 앞으로 대두될 공간확보결정의 시급성이 될것 같다. 당장 내년에 공교되어야할 신규수업연구실, 기타 복지공간확충등을 놓고 보았을때 현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에서 없어서는 안될 요소중의 하나인 대공간의 효율적 사용방안및 공급문제는 장기적인 대책수립을 요하고 있다.

학교발전의 장단기적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3캠퍼스 조성 또한 구상자체는 궁극적으로 수용할수 있지만 이의 현실화 방안이 더욱 절실한 형편이다. 그러나 심상하다 싶으면 용도변경이 이뤄지는 현 학내 공간문제의 오류점을 또다시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집권당과 사전 선거운동

제14대 대통령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12일 선거일정을 확정했고 20일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흔히 '여당은 조직' 야당은 바람'이라지만 우리나라처럼 조직을 교묘히 이용, 불법선거운동을 자행하는 나라는 없다. 올해 3월 총선에서는 '군부대'라는 조직을 이용해 부패자무정선거를 자행했고 안기부를 이용해 민주당후보 흑색선전을 했다. 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등 광범단체를 이용하거나 민자포조직원 등 반장을 이용하는 사전불법선거운동은 이제 구태의연한 '조직활용'에 불과한 정도로 보편화되는 실정이다.

노태우대통령의 발당선언이나 총합내각 구성의 근본이유가 공정선거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민자당 불법선거운동은 마치 호수에 얽힌 떠 있는 오리모양새에 불과하다. 즉 물속에서는 정선없이 물갈퀴를 저어대면서 걸으면 배어난 척 하는 모습처럼 하나의 정치체제수단인 것이다.

87년 대통령선거와 올해 대선 공간에서 보이는 민자당 사전선거운동은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3·24총선때도 그랬다. "공정·공평선거실현을 위해 선거운동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선언은 야당은

거냥한 것에 불과했다. 부정선거의 핵심인 관선선거 방지대책이 없는 것은 이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또 87년 KAL기 폭파사건과 마유이조사사각사 발표와 올해 간첩사건 민주당개입설유포, 간첩장비 순회전시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추기 여당표현을 모으려는 선거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3월 총선에서는 '군부대'라는 조직을 이용해 부패자무정선거를 자행했고 안기부를 이용해 민주당후보 흑색선전을 했다. 또 바르게 살기운동협의회 등 광범단체를 이용하거나 민자포조직원 등 반장을 이용하는 사전불법선거운동은 이제 구태의연한 '조직활용'에 불과한 정도로 보편화되는 실정이다.

노태우대통령의 발당선언이나 총합내각 구성의 근본이유가 공정선거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민자당 불법선거운동은 마치 호수에 얽힌 떠 있는 오리모양새에 불과하다. 즉 물속에서는 정선없이 물갈퀴를 저어대면서 걸으면 배어난 척 하는 모습처럼 하나의 정치체제수단인 것이다.

87년 대통령선거와 올해 대선 공간에서 보이는 민자당 사전선거운동은 같은 맥락으로 평가된다. 3·24총선때도 그랬다. "공정·공평선거실현을 위해 선거운동감시를 철저히 하라"는 대통령의 선언은 야당은

◇서울지역 총학선거 결과분석

93년 학자사업 활발할 듯

NL강세—PD부진—투표율 상승

대선후보추천에 대해 '법민' 주단일후보추대를 주장하는 민족해방(NL)계열과 민중민주(PD)계열간의 경쟁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던 서울지역 총학생회선거가 11월 첫째, 둘째 주를 코앞으로 대부분 마무리됐다.

한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준비를 위한 전대협의 조기선거 방침에 따라 예년에 비해 보통 정도 앞당겨 실시된 이번 총학선거의 특징은 크게 민족해방계열의 강세, 민중민주계열의 부진, 비운동권 후보의 퇴조 투표율의 상승 등을 들 수 있다.

'법민'주단일후보추대 '지주' 학생회 건설 등의 기치를 내건 민족해방계열 후보는 어제(17일)까지 선거가 끝난 23개 대학중 21개 대학에서 당선됐

다. 서울대, 연세대등 주오대 학원이나 올해 민중민주계열이던 고려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에서도 민족해방계열 후보가 당선돼 두드러진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민중대통령후보추대'를 주장하는 민중민주계열은 서울지역 모든대학에 후보를 내세웠으나 동덕여대를 제외하고 모두 낙선하는 부진한 결과를 보였다. 아직 총학선거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올해 선거결과(13개교)는 물론 가장 저조했던 91년선거(7개교)에도 못 미치는 최악의 결과가 예상된다.

한편 비운동권후보와 진보학생연합계열 후보들의 퇴조현상도 두드러진다. 한양대, 국민대, 한성대, 단국대등 4개대학에 출마한 비운동권후보들은

선거가 끝나지 않은 단국대를 제외하고 모두 낙선했으며 이화여대, 홍익대, 서울여대등에 출마한 진보학생연합계열후보들도 모두 낙선했다.

올해 선거의 또하나의 특징으로 투표 참여율을 향상할 수 있다. 91·92년 2년동안 60%를 밑도는 낮은 투표율에 비해 올해는 60%를 넘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최고 투표율을 보인 대학은 덕성여대(81%)이고 투표참여가 가장 부진했던 대학은 한양대(54.4%)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족해방계열후보의 대거당선은 앞으로 '젊은층 선거참여율도' '공명선거 실시' 등의 선거활동은 조직적으로 모아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도 사업에 있어 각학교에서 학기초 등록금투쟁을 통한 지주

라 할 수 있다. 또 국민법철계 등 내년도 통일운동도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서울시에 각대학 총학선거는 학생운동의 방향을 대중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92대선 결과에 따라 내년도 총학선거에서 민중민주계열이 다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되고 있다.

<김성현 기자>

◇서울시내 주요대학 총학선거 결과

학교	당선자	성향	투표율	득표율
고려대	신장현(연4), 김종태(산림3)	NL	61%	55%
국민대	권혁기(국사3), 오치구(경제4)	NL	72%	26%
덕성여대	김미진(식영4), 우소연(국문4)	NL	81%	54%
동덕여대	정지연(경영3), 박정은(국문3)	PD	70%	53%
서강대	최현철(경영3), 김기백(물리3)	NL	76%	60%
서울대	조두현(경제4), 손진욱(윤리4)	NL	66%	51%
이화여대	성운숙(사회3), 김성연(외교3)	NL	58%	55%
중앙대	김기현(국문4), 김명준(전기3)	NL	68%	65%
한양대	김재승(경외4), 박계원(재료4)	NL	54.4%	49%

(NL=민족해방 PD=민중민주)

東國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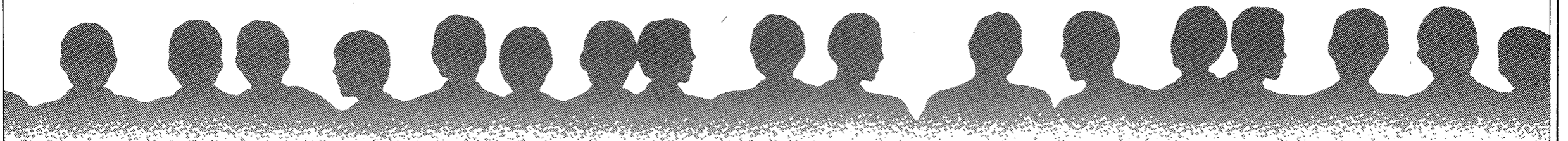


93 新출속도...미술학과 학생들의 하루

(주)금강·고려화학·금강종합건설은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에 있어서 정상에 자리한 (주)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은 더욱 더 앞선 기술과 투자를 통해 국내·외에 그 명성을 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무기질 광석자원을 활용하여 모은 단열재, 내외장재 및 편리차, 자동차유리 등 유리산업에 이르기까지 초영역의 극한 물성에 도전하는 - (주)금강 일반 페인트에서 선박, 자동차, 컨테이너, 반도체 봉지재까지 세계 굴지의 화학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며 정밀화학산업을 이끌어가는 - 고려화학(주), 우수한 인적자원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을 추구하는 - 금강종합건설(주)은 이 땅의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자금 강 인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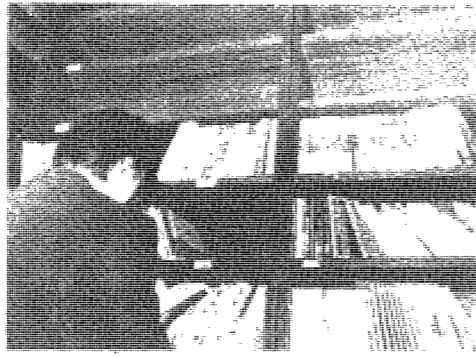
심우장 운영상태 이대로 좋은가

'학생복지사업' 취지 못살려

학교·학복위와 연대 및 수익사업 필요

심우장이 들어선 지 햇수로 3년째가 돼가고 있지만 개장 첫해인 90년이나 지금이나 경영상·재정상 어려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3년전 심우장이 개장을 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렇지만 불교대학생들은 공간확보를 위해 농성을 계속해나갔고 이로 인해 학교당국은 지금의 도서관 건물 귀퉁이 장소를 내줬다. 어쩔사리 문을 연 심우장이지만 개장 초 월 수익 3백만원에 육박했던 것 외에는 지금까지 1백만원 내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는 불교대학생들의 학생복지운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중간배려 외에는 아무런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 학교당국과 중앙학복위의 도움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대학생들은 아직까지 학생회 복지운영 기조 아래 산적한 과제 풀이에 노심초사

하고 있을 뿐 대안마련은 부실한 실정이다. 현재 중앙학복위는 불교대학생회와의 지지운영 고수때문에 연대사업 방안을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학교측은 불교대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요구사안인 심우장 확장 건을 곧 진행시킬 것이라고 일러졌다. 현재 관리되는 이 공사를 위해 비용상정을 해놓고 공사업체 선정에 전념하며 빠르면 내달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복지사업의 학생복지운영의 시발점이었던 심우장이 확장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부실한 운영에 대한 대책마련없는 앞모든다. 사업전망 밝게 볼 수단은 없다. 지금 심우장은 불교대학원생 편입생과 불교대학 2~3명이 실질 운영을 맡고 있으며 원사를 포함한 전경사, 불교 포교도사 및 교양과자 1천여명의 책을 전시·판매하고 있



△개장 3년째를 맞은 심우장이지만 적자운영으로 인한 도서구비량 부족 등 재정·경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만 자본금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책을 들여온 뒤 판매금중 대금을 때어 후납입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출판사와의 마찰과 재정상 어려움이 뒤따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그치지않은 도서구비 상태로 심우장을 찾는 학생도 적다. "학교나 학복위의 도움을 받아 서적구비를 보다 폭넓고 대량구입 배치하는 것이 여러가지 책을 구하

려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정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유상품, 우리상품등의 판매와 다양한 수익사업을 시도해야겠지요"라고 불교대학생회 간부들은 입을 모은다. 현재 심우장의 재정상태는 몇몇 출판사에 미납대금이 남아 있어 이 상태로 유지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다. 이의 극복을 위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한 방도다. 이는 학복위의 연계사업으로 불교대학원생에게 인식되어야 하며 학생회 복지운영의 한계점 극복을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심우장은 이제 확장과 더불어 학생복지사업의 확장·발전을 위한 혁신이 요구되는 단계에 있다. 심우장이 단순히 불교책이나 불교용품 판매장이 아니라 현 상태의 운영실태 타개를 위한 새로운 사업방향을 요구된다. 이제 우리의 커다란 학자사업 성과로 남아있는 심우장이 이런 의미뿐 아니라 사업내용에서의 질적도약을 통해 '학생이 운영하는 학생복지'라는 취지를 살리는 새기기를 마련하길 바란다. <박수로 기자>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6공치하에서 양심수는 하루 평균 4명, 인권유린의 대명사였던 5종의 1.67명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수치다. 가두지 않고서는 유지조차 해나갈 수 없는 현정권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국가보안법의 칼베를 쏘여 그들의 삶을 자다 찬 감방으로 내 본 것이다. 겨울문턱으로 가고있는 지금도 율령로 40여년이 넘게 창살속에서 고통받는 정치수들이 남아있다. 이들 가족들은 추운 겨울 감방에 남아있는 남편, 지시 생각에 따뜻한 밤 한술 제대로 넘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양심수와 정치수의 가족들 모인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이하 민가협)는 오는 12월 11, 12일 네번째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행사를 갖는다.

것인양 선전에 왔다. 이에 대한 폭로와 함께 이공연에서는 노동자, 도시민, 노점상, 농민 등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을 벌이다 구속된 이들의 가정을 통해 가정을 잃고 생계에 시달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형상화시킬 예정이다. 더불어 양심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의 열악한 처우문제의 폭로를 통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양심수들의 이골을 형상화 해낸다. 또한 민중연애에 찬물을 끼얹었던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의 실체와 공정방송을 쟁취하려다 구속된 문화방송 노조원들의 애가동 전방면인 6공 인권유린 실태를 알려내는 것을 주제로 삼고있다. 장기수 이인모씨의 아내 김순임씨가 보낸 편지중 분단의 사슬과 장기수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말하고 있는 편지를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을 나눠보면 어떨까. "여보, 당신이 30년이라는 긴 세월 인간이하의 고문과 박해를 받으며 옥살이 한 그 고향을 헤아려보면 분노와 원한이 사무칩니다. ... 몸은 비록 떨어져 있어도 저의 벗은 언제나 당신곁에 있어요..." <문화부>

'형제산고' 퍼낸 박광수(국문4) 군과 그 가족을 만나

"누군가 아무 골목의 담벼락에다 시를 써서하였다든 그 시절처럼 우리는 문학이 그렇게 가까운 이웃으로 살던 시대를 살아가고 싶은 편이다"라고 이 책의 첫머리는 이야기한다. 해지고 구멍난 삶의 한켠을 문학이라는 형제같은 기둥이 6형제의 삶의 흔적을 그려낸 그들의 지난과 슬픔, 때론 가슴박박 우애를 이 책 '형제산고'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솔하게 엮어가고 있다. '형제산고(兄弟山歌)', 풀이하자면 '형제들의 흠어진 원고들'쯤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흠어진 원고에는 생석(生石) 성수, 태성(太成) 익수, 목빙(木氷) 광수, 조봉(峯) 현수, 오수, 지숙(地淑) 6형제의 희노애락이 분화되어 있다. 이밖으로 일곱형제의 나이테를 두른 '형제산고'는 고장된 영혼의 시원에서부터 서로의 시에 대한 갈증을 토로한 감상문, 생생한 여정의 체험을 기록한 기행문, 새벽녘 고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형제에게 묻는 아우의 짙한 서신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삶의 이야기를 담고있다. 특히 이들 형제중 박광수(국문4) 군과 박현수

흠어진 삶의 자취를 엮어서



△일곱형제 나이테를 두른 '형제산고'는 6형제의 희노애락이 문화를 통해 응축·여과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자취이자 이력서다. 왼쪽부터 박성수, 익수, 광수, 현수, 오수, 지숙. (세종대 국문4) 군은 작년 동대문대학 상과 올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시부문에 각각 당선되기도 하는 등 탄탄한 문학적 토대와 체고된 시적 수준을 보여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작품집이 높이 평가되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문학이 그들의 삶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전철, 버스에서 만들어지는 짜투리시간을 덮었던 책과의 해후의 순간"이라고 여기는 박익수(32세·들깨형)씨의 허탈한 웃음속 "우리는 문학이 삶을 떠난 요원한 별천지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다"라는 박현수의 말속에서 알 수 있듯이 말이다.

'형제산고'는 지난 삶의 '산고(産苦)' 속에 탄생한 그들의 자취이며 이력서이다. 가난이라는 환경이 그들에게 짙지운 것은 문학을 통한 극복의 뜻이었고, 어릴적 큰 형님의 권유에 못이겨 시작했던 형제들간의 편지 쓰기, 자신의 사유의 폭을 확대시켜 준 일기 쓰기 등은 지금까지 그들 형제의 문학적 자양분이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번 북방 형의 작품들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시도되고 있어, 읽는 이에게 상당한 재미와 매력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처리에 있어서 의식과 언어의 무관성의 결과로 보이는 몇몇 구절들이 눈에 띄는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오수의 시에 나타난 존재는 현실에 대한 우울감이 선명되지만 삶은 미래에 대한 불연이 더 집요하게 자신을 괴롭힌다고 믿고 있어요" 이처럼 그들은 서로에게 친근한 형·아우이자 동시에 날카로운 비평도 서슴치 않는 동료이기도 하다. "보잘것없는 삶을 나누어 내는 듯 하여 부끄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의 사색의 뿌리를 더 들여볼 수 있어 무엇보다 가슴뿌듯합니다"라며 박광수군은 출판된 '형제산고'를 들여다보며 흐뭇해 한다.

알아들시다 귀 똥지 많시다

귀를 똥지면 신경통에 좋다고요 말하는데 과연 옳은 설인지. 요즘은 아저머나, 아가씨를 뿐만 아니라 어린이, 남자들까지 귀똥지를 하는데, 귀 똥지는 것이 여러가지 질병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다 아는 얘기지만, '사람의 몸은 세포들의 모임이며 세포는 예외없이 핵을 가지고 있고 그 핵속에는 46개의 염색체가 들어 있다. 그리고 염색체의 주성분은 DNA이며 DNA는 유전자들의 모임.' 그런데 만일 이 유전자가 어떤 해로운 자극물로 인해 변질되면 비정상적인 기능을 갖게 되어 여러가지 병을 유발한다고. 따라서 귀똥지를 달기 위해 똥은 구멍에 각종 금속 귀걸이를 끼우거나, 귀를 똥지 않더라도 귀걸이를 착용하면 그 부분이 자극을 받아 그 부위에 있는 세포들의 유전자가 변질된다. 그래서 똥, 똥똥에는 피부병(습진) 혹은 피부암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건강이 우선인데... "귀 똥지 마세요..." <문화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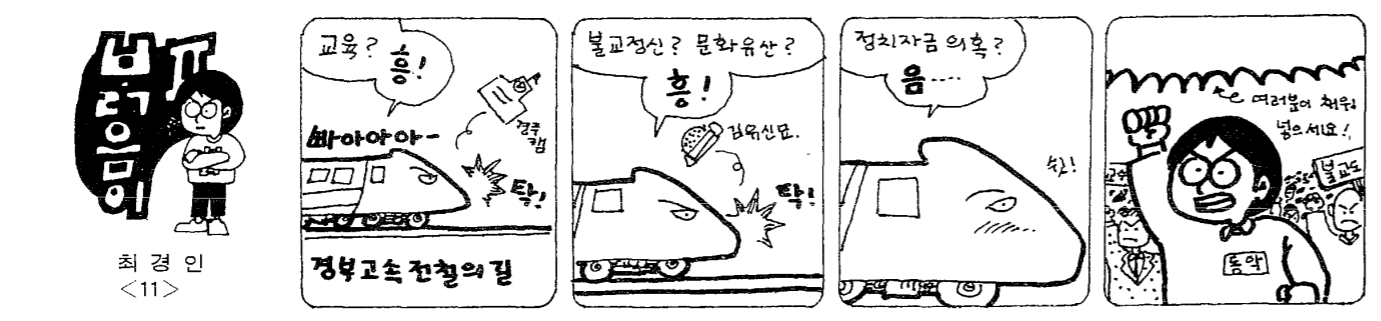
귀 똥지 많시다

추수처럼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영역에서 시험을 치루며 살아가는 것이다. 향시 무엇보다도 시험의 연속에서 잊지말아야 하는 것은 시험을 떠나는 자세이다. 모든 시험이 어렵다는 통속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시험은 어느 순간·장소·직위

시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 곧 시험은 시험인 것이다. ▲어린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험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었을 것이다. 이는 이제까지 살고 내년 학생들의 중심을 찾는 충학선기를 들을수 있다. 또한 오는 12월 18일의 대통령선거 역시 중요한 시험장인 것이다. 시험은 다른 평이한 말로 평가라고도 일컫는다. 일련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없는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싫고 귀찮다고 해서 부딪쳐야 할 시험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피하는 것은 곧 현실 도피차원에서 이뤄지는 패배자적 행태이다. 어떤이는 시험지도를 출가는 편이다. 시험을 통해 그들 뿌린만큼 거둔다는 철저한 인식속에서 멀어진다. 한순간순간이 시험의 연속선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이에대한 올바른 처방을 구하려 해야 할 것이다. ▲다음주가 기말고사기간이다. 또다시 학내 도서관은 물론이거니와 옆천근의 얼굴은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표정지체 일제다. 시험때문에 식박해제하는 한 캠퍼스의 모든 사물 하나하나에 생명을 불어 넣는게 필요하다. 오늘도 시험이고 내일도 시험이지만 시험이란 시험을 치를수있는게 오늘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한다. <麟>



제2회 대학(원)생 학술논문 현상공모

**"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참신한 지성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비씨카드 발급을 통해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는 비씨카드가 "꿈이 있는 신용사회"를 열이기 위해 대학(원)생 학술논문을 현상공모합니다.

- 1. 응모자격**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2. 논문주제**
-신용카드의 한국적 위상정립과 정책화 방안
-신용카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신용카드의 사회적 역할 및 기능
-신용카드의 이용을 제고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
-신용카드의 국제민족(CS)경영전략 방안
-국제화시대의 신용카드 역할
-정보화 사회에서의 신용카드산업의 발전방안
-신용카드의 발행권 문제관련 제재주
- 3. 응모마감일**
-1993. 3. 2(화)
●우편접수는 등기발송에 한하며,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받까지 유효함.
- 4. 응모요령**
-논문매수 : 200자 원고지 100매내의 분량(10매정도의 요약문 첨부)
-논문작성요령 : A4 규격용지(워드 프로세서) 사용
-제출처 : 비씨카드주식회사 기획조사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87 우편번호 137-070
- 5. 입선작발표 및 시상**
-입선작발표 : 1993. 3. 31(수)
(서울경제신문 광고 및 개별통지)
-시 상
●최우수작(1명) 상금 300만원 및 상패
●우수작(2명) 상금 각 100만원 및 상패
●가 작(3명) 상금 각 50만원 및 상패
*응모자 전원에게는 고교기념품 제공
- 6. 기타사항**
-논문 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입선작이 없을 수 있음.
-논문 용모시 반드시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명기하고 제각종명서 1부를 첨부할 것.
-접수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선작에 대한 소유권은 당사에 귀속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기획조사부로 문의 (전화 : 02/520-4831, 4833)

비씨카드 발급안내

"신바람의 비씨카드가 우배를 돕는 장학카드입니다!"

비씨 장학카드는 회원님께서 이용하신 카드이용(신용카드 대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하여 회원님의 교육에 인적양성 및 대학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전달하는 장학카드입니다. 따라서 비씨 장학카드 회원께서는 추가비용 부담없이 모교의 장학기금 조성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기존 비씨카드와 동일합니다.

- 발급대상
●출입통문하면서 기존 비씨카드회원이거나 신규발급을 원하시는 분
- 신청방법
●기존 비씨카드 회원인 경우(교체발급 대상)
-비씨카드를 발급받으신 해당은행 영업점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청
-신청내용 : 회원의 해당 대학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비씨카드 회원이 아닌 경우(신규발급 대상)
-비씨카드 발행은행 영업점에 서면(비씨카드 입회신청서)으로 신청
-서면 작성시 해당 대학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함께 기재

비씨카드

■카드발행은행 조흥은행, 한국수업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서울신협은행, 농협중앙회,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기은행, 경남은행, 충청은행